

류현진, 챔피언십시리즈 합류 어려울 듯

현지언론 “다저스, 좌완 불펜 아빌란 보강할 것” 전망

가을야구에 몸이 달은 류현진(30·LA 다저스)이 다비전시리즈에 이어 챔피언십시리즈에서도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다저스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7전4선승제) 1차전을 치른다. 다저스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다비전시리즈를 3연승으로 가볍게 통과하고 일찌감치 챔피언십시리즈에 진출했다. 4명의 선발 중 1~3선발만으로 3연승을 거둔 다저스는 류현진 대신 4선발 자리를 꿰찬 알렉스 우드를 다비전시리즈 마운드에 세울 필요도 없었다. 선발진을 포함한 투수진의 체력을 안배하는 것은 물론, 휴식시간도 충분히 주어지면서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를 챔피언십시리즈 1차전 선발로 내세울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따라서 현지 언론은 다저스가 챔피언십시리즈를 앞두고 로스터 구성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 예측을 내놓고 있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com의 다저

스 담당 켄 거너 기사는 13일 SNS를 통해 “좌완 불펜 루이스 아빌란이 유일한 로스터 변화일 것”이라고 전했다. 시카고 컵스와 워싱턴 내셔널스 중 좌타자가 많은 컵스가 챔피언십시리즈에 올라온다면 좌완 불펜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현재 토니 왓슨과 토니 싱그라니 등 2명에 불과한 좌완 불펜진에 아빌란을 추가하는 쪽으로 로스터의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발 요원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불펜진에 대한 보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불펜 활용 불가 통보를 받은 류현진의 로스터 합류 기회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로버츠 감독은 챔피언십시리즈 상대와 관계없이 1차전의 선발로 에이스 커쇼의 출격을 확정했다. 2, 3차전 선발은 미정인 가운데 4차전 선발로 우드를 예고했다. 애리조나와 다비전시리즈 2차전에 나섰



던 리치 힐과 3차전에 선발 등판했던 다르빗슈 유의 순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류현진은 선수단과 동행하며 언제든지 경기에 나설 수 있는 몸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선발 요원의 부상 변수가 없는 이상 챔피언십시리즈에서도 출전이 불투명하다

/뉴시스

‘양궁’ 최미선·기보배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8연속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금지킴이를 쌓은 여자 양궁대표 최미선과 기보배가 정부로부터 체육상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제55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 및 2017 체육발전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상 및 포상 대상자는 대한민국체육상 9명, 청룡장 28명, 맹호장 16명, 거상장 25명, 백마장 16명, 기린장 9명, 체육포장 12명 등 총 113명이다. 이날 최미선은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상하고 기보배는 체육발전유공자부문(청룡장) 수훈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체육상은 체육인들을 격려하는 체육 분야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한다. 국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지도자,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을 발굴해 9개 부문(대통령상 7개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개 부문, 특별상 1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수상자로는 경기상에 최미선을 포함해 ▲지도상 김종기 대한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 총감독 ▲연구상 나영일 서울대학교 교수 ▲공로상 박성인 대한빙상경기연맹 명예회장 ▲진흥상 김선교 양평군청 군수 ▲극복상 조기성 부산장애인체육회 남파수영대표 ▲특수체육상 안종대 대한민국의사협회 사업관리국장 ▲심판상(장관상) 문원배 대한유도의 상임심판위원장 ▲체육인의 강한 어머니상(특별상) 박진희 여자(여자빙상) 박하는 선수의 어머니가 선정됐다. 기보배는 체육훈장 청룡장의 주인공이 됐다. 국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훈장은 청룡장과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포장으로 나뉜다. 이밖에 장애인 체육발전유공 부문에서는 지난해 리우패럴림픽대회 금메달 등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남자수영 이인국과 이영덕 대한장애인유도협회 지도자 등 15명이 청룡장 수훈자로 선정됐다.

/뉴시스

한국축구, 11월 뒷문 다져야 ‘러시아 쇼크’ 피한다

수비 불안... 오랜 기간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어

신태홍호의 뒷문이 뻥 뚫렸다. 이대로라면 내년 러시아월드컵에서 망신만 당할 게 뻔하다. 사실 한국 축구의 수비 불안은 하루 이틀된 논쟁거리가 아니다. 오랜 기간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최종예선 B조에서 6개월 중 가장 많은 11골을 넣고도 탈락 위기에 몰렸던 이유 역시 수비 때문이었다. 공격은 수차례 기회 중 한 차례만 실려도 성공이지만, 수비는 아니다. 100번 잘 막고 한 번의 실수만 나와도 실패다. 그만큼 수비는 완벽에 가깝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조직력 다지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이미 적기를 놓쳤다. 율리 슈틸라케 전 감독은 최종예선을 치를 때마다 거의 매 경기 다른 수비 라인업을 선보였다. 그러나 슈틸라케 전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은 선수는 아무도 없었다. 사실, 볼러막거나 다름없었다. 누구 하나 수비진의 리더가 되지 못했다.

이 숙제는 고스란히 신 감독에게 돌아왔다. 신 감독은 10월 유럽 원정 2연전에서 밑그림을 그려보려 했지만 야심차게 꺼내든 변형 스타일은 처참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 월드컵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8개월. 실질적으로 손발을 맞출 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다. 대표팀은 11월 평가전을 시작으로 12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동아시아컵, 1월 해외 전지훈련, 3월 A매치를 소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12월과 1월에는 유럽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소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정에 멤버가 모두 모여 조직력을 다듬을 기회는 11월과 내년 3월 두 차례 뿐이다. 11월 A매치에서 패배를 완상한 뒤 남은 기간 조직력 극대화에 나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길이다. 중심은 유럽 원정에서 빠졌던 김민재(전북)가 잡을 공산이 크다. 이란, 우즈베키스탄과의 최종예선전을 통해 A매치에 데뷔한 김민재는 ‘조짜답지



31일 오후 서울 미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9차전' 대한민국과 이란의 경기, 한국 김민재가 공격을 하고 있다.

않은 대범함으로 대형 수비수의 탄생을 알렸다. 이 밖에 또 다른 K리거인 최철순, 김진수(이상 전북) 등이 다시 한 번 테스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감독은 오는 30일 11월 A매치 소집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는 다음달 9일과 14일 열릴 공산이 크다.

/뉴시스

박진영, ‘음원강자 헤이즈와 듀엣곡 ‘후회해’ 발표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과 ‘신 흥 음원강자’인 가수 헤이즈가 협업한다. 13일 박진영 소속사 JYP에 따르면 박진영과 헤이즈가 듀엣한 ‘후회해’가 16일 정도 공개된다. 두 사람은 지난 7월29일 방송된 SBS TV 박진영의 파티피플의 MC와 게스트로 인연을 맺었다. 당시 비도 오고 그래서를 통해 음원차트 정상을 차지한 헤이즈는 방송 출연을 자제하고 있었음에도 데뷔 24년 만에 첫 MC를 맡은 박진영을 위해 프로그램에 나왔다. 박진영은 “파티피플에서 그녀의 노래하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보면서 ‘어쩔 저렇게 온 진심을 다해 노래를 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다음 날까지도 계속 생각이 나 노래 하나를 보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헛지 그녀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는지 알아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문자가 왔다’면서 ‘듣자마자 평평 울었어요. 저 이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후회해’라는 곡이 만들어졌다”고 부연했다. 박진영이 신곡을 발표하는 것은 지난해 4월 공개한 댄스곡 ‘살아있네’ 이후 1년 6개월여이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